

귀어 스몰엑스포 10일 목포서 열린다

전남도·어촌특화센터, 애로사항 지원·성공 사례 상담 희망 도시민 300명 초청 어촌 홍보·빈집·일자리 소개

제1회 섬의 날 주간(8월 8-10일)을 맞아 오는 10일 제2회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Small Expo)가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귀어 스몰엑스포는 전남도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준비했다.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직접 만나는 상담의 장이다. 이번 귀어 스몰엑스포 개최를 위해 서

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도시의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300여 명을 초청했다. 목포 고하, 여수 안포, 순천 와온 어촌계 등 50곳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귀어인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성공한 귀어 선배, 우수 수산업 대표, 각 시군 귀어·귀촌 담당자 등도 참석해 상담에 나선다. 특히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들이 정착해 살아갈 어촌공동체인 어촌계가 직접 도시민에게 자신들의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계

가입 조건, 빈집, 일자리 등 귀어·귀촌 시 제공되는 어촌계 차원의 지원책도 소개한다. 귀어·귀촌 의사를 밝힌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남 어촌의 밤' 행사를 가족과 함께 개최하고 어촌에서 장단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고흥에 청년 귀어가 어장 8건 565ha 규모를 승인했다. 2018년 2월 전국 세 번째로 귀어학교 개설 기관으로 선정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간지원에 귀어·귀촌 도시민 교육 기반시설을 갖춰가고 있다. 2018년 전남에 귀어난 인구는 322가구

449명이다. 전년보다 37가구가 늘고 가구 원 수도 31명이 증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어촌은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민들이 귀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며 "전국 어촌계 2029곳 가운데 847곳이 자리하고 있는 전남에서 도시민이 인생 2막을 열어가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변 대기업·지자체 등 의견 수렴 ‘광양항 2차 로테르담’ 구체화 할 것”



김재철 여수해양수산청장

4차 산업 접목 테스트베드 석유화학·제철 부가가치 높여 지역발전 크게 기여 하겠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트리거 물(물동량 연동개발 시스템)로 인해 주춤했던 광양항이 세계적인 클러스터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김재철(6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광양항과 여수항 주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해 실현 시킬 방침이다.

그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면서 4차 산업을 접목하는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도록 광양항을 바꿔낼 것”이라며 “석유화학, 제철 등 지역의 주력산업을 지원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광양항은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 인천에 밀렸지만, 전체 화물물동량은 2018년 기준 3억3000만톤으로 전국(16억2000만)의 19%를 차지하며, 비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전국 1위(24%)다. 철재, 석유화학은 물론 소비재의 수출입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맞은 편에 여수항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묘도가 있는 공간적으로도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

묘도가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연중 360일 이상 하역작업이 가능하고, 항로 수심 20m 이상, 안벽 수심 17m 이상으로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만이 아니라 최대 30만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부두다. 광양항은 2017년 기준 기반 산업단지 생산액 80조원, 고용 3만8000명으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사실상 광양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 및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항만의 기능을 추가하고, 문화와 친수와 관련된 콘텐츠를 잘 섞어낸다면 경제적 측면은 물론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충분한 투자로, 그동안 잠재돼 있던 광양항의 가능성을 극대화해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월 신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취임했다. 오윤열 항만국장을 있는 대표적인 해양수산부 내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취임 이후 그는 여수광양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참여, 해안가 대청소 등 지역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광양항의 비전을 알리고 이를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며 “광양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로테르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나둘 실현해나갈 것”고 덧붙였다.

폭염속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전남도, 적조 예찰 강화도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도가 농업인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적조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4일 “오는 11일까지 강한 일사와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지역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업인 행동 요령과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을 중점 홍보하는 등 폭염피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염 발생 시 고령자·독거노인·신체허약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말고, 그 외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작업을 피해줄 것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적정 환경 유지를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 냉방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노지채소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한 관수작업을 하고, 과실은 햇볕 땀 피해 예방을 위해 강한 직사광선 아래 가지들을 재배지해야 한다. 전남도는 폭염특보 발생 시 긴급 재난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및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해 전파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온도 연일 상승하면서 고수온 관심단계(섭씨 25-26도)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발생이 우려돼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해온 ‘적조 대응 상황실’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2일부터 적조 발생 우선해역 60개 지점에 대해 주2회 정기예찰을 하고, 연안 16개 시·군 적조 명예감시원 213명을 활용해 수시예찰을 실시한다. 적조 상황관리는 물론 특보 발령 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방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서구청 자활번개장터 2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자활번개장터가 열려 시민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자활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다.

DJ서거 10주기 광주서 다양한 추모행사

오늘 사진전·다큐 영화 상영 16일 학술대회·17일 음악회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4일 김대중서거10주기광주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모 행사는 ‘평화를 깨우다! 다시 평화!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애도와 추모를 뛰어넘어 시민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의 사상을 찾아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5일 오후 5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김 전 대통령 추모사진전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사진·영상전’으로 문을 연다. 본격적인 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16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홀에서 ‘아! 김대중, 그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김 전 대통령이 추구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 등을 심도 있게 재조명한 다. 기조 강연으로 베르너 페니히(Werner

Pfennig)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가 ‘세계 속의 김대중’을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소개하고 최영태 전남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이 ‘김대중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함께 해 ‘남북문제의 진단과 과제’를 풀어놓는다. 또 17일 오후 7시엔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추모 헌정음악회가 열린다. 추모식은 18일 오후 3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